ASAN
FRONTIER
ACADEMY

제10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기집

우리의 성장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비 전 | 국내 소셜섹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

목 적 |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 양성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소셜섹터 분야 중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소셜섹터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소셜섹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소셜섹터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안내

7개월 간 진행되는 교육은 국내 영역별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토론, 케이스스터디, 혁신기관 필드트립, 글로벌 스터디를 포함한 다면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 영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등 핵심 경영 지식을 최신 트렌드와 연계하여 습득합니다.

리더십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실천적인 역량을 함양하고 리더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통찰합니다.

사회혁신

필드트립과 특강을 통해 다양한 혁신사례를 익히고 사회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배양합니다.

캡스톤

사회문제 해결 팀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팀과 사업의 균형과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을 경험합니다.

문제해결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경험하며 핵심 문제를 파악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운영방향

담임 교수제

모듈별 담당 교수가 직접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지도합니다.

문제 해결 중심 과정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습득하여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지향 수업 및 사례 기반 학습

조직 현장에 기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국내외 단체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내용의 충분한 이해를 돕습니다.

아카데미 자체 커리큘럼 개발 및 공유

자체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소셜섹터 지식 창출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토론 중심 학습

교육 내용과 관련된 참가자의 경험과 의견 및 소속단체의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강의 이해도와 수강생의 참여도를 증진시킵니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

영역별 전문가 특강 등 아카데미 동문을 위한 Alumni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섹터 리더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기 발자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진행

1·2차 캡스톤 발표

글로벌 스터디

수료식

제10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 수기

고성준
길종훈
김기홍
김나연
김대호

김선구
김소영
김예리
김찬미
김호영

남준일
노영선
박보연
박종규
서원하

서철원
오지혜
윤석철
이대영
이미영

이상석
이성현
이민정
이주희
정덕순

정은호
정진희
조혜은
최주현
홍주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다가온 나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고성준
행궁동지역아동센터

 # Prologue

21년 2월 초, 어느 날 문득 들여다보던 SNS 속에서 가끔 들어보았던 이름이 눈에 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의 첫 만남은 어찌 보면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때 모집공고를 보고 지나쳤으면 지나온 나의 시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만날 나의 시간이 어떠했을까?

 # 우연히

1차, 2차, 최종 합격까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아는 주위 사회복지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이 앞은 축하를 해주었지만 '너 정말 의외다'라는 반응도 꽤 있었다. 추측건대 면접 때 교수님들의 질문에 뭣소 나의 생각을 꾸밈없이 그리고 '비장하게 말씀드린 것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비결이 아니었나 하며 매력 자신을 위로했다.

 # 나, 그리고 우리

입학 첫날부터 스텝이 꼬였다.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제대 하지 못해 입학식 및 OT워크숍에 나 혼자 늦게 합류했고, 그러면서 전체 분위기 적응에 적잖게 신경이 써졌다. 지적 시민단체 기반으로 일하는 나와 달리 예이지금 사단법인, 재단법인센터 사회복지기관, 공공 특수목적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 조직원 30명이 같은 공간에 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만만치 않은 그 기운에 나도 모르게 주눅 드는 모습이 느껴졌다.

 # 교보재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 평가하자면 '과정 수행은 저(低), 개달음은 중(中), 수업 교보재로서는 고(高)'라고 생각한다. 조원들과 마찰 속에서 수동적인 나의 모습을 개탄기도 하고 그 와중에 열심히 노릴 저어 정해하는 우리 조원들을 보기도 했다. 맞벌 사건을 통해 상황의 핵심이 된 나를 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교보재가 되는 여러 과정을 통해 나의 리더십을 돌아보았고 조원들과 동기들의 멤버십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 우리, 그리고 나

전체 과정의 20% 정도를 지나던 시점에, 대열에서의 이탈을 생각했기에 그 당시 기억은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 고민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 기억을 달갑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안겨준 사람들 또한 그들이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우리 조원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 사랑합니다

30대 중반 위능계 사회복지사로 뛰어들었다. 소규모 기관들을 운영하며 겪은 여러 상황 속에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주위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할지, 그 고민을 이 수료수기에 한 자 한 자 글을 쓰며 꼭꼭 눌러본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해준 것은 바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덕분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를 위해 함께하신 교수님과 매니저님, 그리고 우리 10기 동기들, 마지막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1조 '다양성UP'의 김대호·남준원·노영선·이미랑·홍주은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변곡점에서 질문을 바꾸다

김종훈
(사)팀앤팀

"저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행해야만 하는 자리에 저를 자빠르게 가져다 놓습니다."

면접관 교수님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소개했던 말이다. 다양한 유혹이 찾아올 해를 맞두고, 한 직장에서 꼭 10년을 채우는 해에 나는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았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과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이가 분명 더 있겠지 하며, 늘 같은 일상, 비슷한 명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고 싶었다. 아, 그랬었다. 수기를 쓰다 보니 시작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과정의 끝을 남겨둔 이 지점에서 온 길을 뒤 돌아보니 그 뭔가를 채워준 최선의 선택이었다.

'모든 과정에 성심을 다해 집어넣자'라는 소박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목표를 세웠다. 방역을 위해 대부분의 수업과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한결 수월한 목표였지만, 여럿과 함께 기꺼이고 싶었던 새로운 '사람'과의 접점을 만드는 건 포단한 수고가 필요했다. 일부러 찾아갈 기회를 만들고, 만남의 짜악 속에서도 고민과 싶을 나누며 동기 간계가 깊어졌다. 모두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시간과 자신을 나누었으리라. 든든한 내 편, 도전이 되는 친구들이 생겼다.

'나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느새 내 뒤통수를 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이 생겨나고 앞서가던 선배들이 그랬 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찾아온다. 나는 그렇 수 있을까?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전히 같은 질문 위에서 움직일여하지 못하고 서 있다. 그녀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게 리더십인 줄. 최소한 같은 조직 내에서만큼은 그것이 '리더라면'이라는 불문율로 믿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저 흉조칠 수밖에 없는 까닭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생을 걸고 뛰어나갔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했던 숭고한 정신이 나와는 그리도 멀게만 느껴졌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었다.

'리더가 된다는 건, 나를 찾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는 삶십 영의 독특한 리더십을 경험하고 있다.'

서로를 위해 서로가 살아있는 리더십 교과서가 되어주었다. 아직 완벽하게 탈고된 책들은 아니지만,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곧 다시 씨앗 저항 한번이 내무 기대하는 책들이었다.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의 틀 수 있게 만들어준 시른 권의 책, 10기 동기 한 명 한 명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그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어 주신 팀장의 교수님들께도 존해를 담았다.

자, 이제 답을 찾으러 가자.

나는 링 위의 도전자처럼 두들겨 맞다 한방을 노리는 희망과 위기감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다

김기홍
송파구립 마천청소년센터

[#1] 4월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더없이 좋은 시기다. 이제 막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서로 제법 친해졌을까, 웅크렸던 겨울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시기로 나는 이 시기의 오후의 빛과, 노랗고 분홍빛의 하천변 거리를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느낀다.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실패의 그림 같은 부정적인 생각 따위는 상상도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더없이 좋은 것일까? 나는 그 4월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가 되었다. 도전자의 첫날 밤, 미그니이트 아산에서 낯선 모두에게 제목과 같이 수료 수강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했던 것이기도 하다. 11월이 되어 저 첫 분장의 의미가 희미해져 갈 때, 다시금 내가 왜 그 말을 쓰려고 했었는지 곱씹어 본다.

[#2] 도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도전이라든가, 나 자신의 한계가 아니는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런 종류일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떤 형태의 도전을 했는지 도통 선택할 수 없다. 도전하고 나면 이내 그 도전이 실패나 성공이나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가서 될 먹고 자야 하나 하는 핑장가 없는 고민부터, 내일의 출근을 더 쉽게 만드는 놓은 퇴근, 불만 가득한 감정을 다 담기에 벅찼던 감정 스케기통이 된 리플렉션 매모도 다는 없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 또한 이전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훗날 이것을 그리워할지도 모르겠다.

[#3]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나의 어딘가 깊숙한 한 모퉁이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마지막을 도전 의식이라고 불리도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칭하겠다. 세상과 담을 쌓고 소위 말하는 '나 잘난 척'에 살아온 내게는 이 세 가지가 역시 돌리려니나 마찬가지이다. 버텨 내야 하다 왔어 아니지만 말이다. 그 모든 것들과 감사하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기를 쓰고 있다. 아 참! 감사할 것이 또 있다. 내 구형 씬크패드 X220, 이제에드 프로 1세대, 수십 번 놓아지게 들은 레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마지막으로 투병 중인 내 짝장애가.

[#4]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업무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비가 오거나 정말 나가기 싫은 날에는 비대면 활동들 찬양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힘들었을까? 이번 도전자의 면치를 좀 더 매길게 날릴 수 있었을까?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주 과제를 하고, 새로운 수업을 듣고, (그것을 권투에 비유해서)흠뻑 두들겨 맞다가 정신 차릴 때쯤이면 언제나 사각의 링 코너에 들려 과제를 하다가 기진맥 빠져서 '우리 이것저것 해요?'하고 매시지를 보내다가 온 홍기그것도 경험과 노력의 산물이라면 냅도 들어가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한 방을 노린다. 어쩌면 나는 이대로 끝났지도 몰라' 하는 위기감과 '어떻게도 되겠지'하는 희망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에는 모한 매력과 카타르시스가 있다. 수기집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사각의 링에서 느꼈던 위기감이 청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5] 25살이 되면서 나는 나의 좁은 세상에서 왕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두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다. 39살, 현실 자각의 소설이 그려져든이 내가 알아나 작은 존재였는 지 함께하는 이들이 내게 보내준 관심과 애정에 책임감과 애틋한 마음을 함께 느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존 듀이의 경험학습을 찬양하는, 경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세상이 있고, 이 과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도전자의 숨해 없는 위대한 여정의 1막이 지금 끝나간다. 어쩌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다를 뒤집으면 하늘이 된다

김나연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지금 생각해보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셜섹터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나는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일상과 과업들이 더 이상 나아질 것도, 더 이상 퇴보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한 지난 7개월의 시간은,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도전이었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통해 많은 분과 교류하면서 저에게 시각의 확장과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었고, 가슴 깊이 묻혀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챕스톤 4조 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한가지 방향만을 보고 살았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바다를 뒤집으면 하늘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된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기억 하나 보며 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모두 행복했고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해주신 10기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반갑게 맞이 할 수 있는 동기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해야 침의 아쉬움보다는 든든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늦은 제자를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신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소중하게 준비해주신 사회혁신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걸어가는 한발 한발이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강대호
함박중합사회복지관

어떤 영화제에서 황정민 배우가 이야기한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수료수기도 그 수상소감을 빗대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교육생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차려 주신 밥상에서 숟가락만 들면 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의 사회혁신팀과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밥상을 차려 주셨고, 저는 숟가락을 들고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한 사회혁신팀과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제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던 과정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도 에 어느덧 수료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생으로 뽑혔을 때는 그냥 조금 기쁠 뿐이었습니다. 벌어진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교육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제가 멍청난 것을 깨닫고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어마어마하고 지루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멍청난 과정의 수료를 앞두고 있다니 스스로 뿌듯하고 감개무량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주 2번씩 높은 밀까지 진행되는 고된 교육과정과 그 이후에 주어지는 과제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랩스톤이라는 과정들이 지치게도 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성찰하게 하는 교육 그리고 그 성찰을 심화하게끔 하는 과제들 때문에 한 뼘 더 자랐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또 의식적으로 배운 것처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과는 달라진 저였습니다.

소중했습니다. 기나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빠르게 과정들이 흘러갔습니다. 돌이켜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참여하고 더 질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생겨났습니다.

잘살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이라는 타이틀과 훌륭한 동문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은 다르구나!'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고성준, 길종훈, 김기홍, 김나연, 김선구, 김소영, 김예리, 김진미, 김효영, 남종일, 노영선, 박보연, 박종규, 서원석, 서철원, 오지혜, 윤석철, 이대영, 이미랑, 이상석, 이성현, 이주희, 정덕순, 정준호, 정진희, 조혜은, 최주현, 홍주은, 29명의 새로운 스승님들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 좋은 길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Every day, Every Moment)

김선구
연수구노인복지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를 앞두고 있자니 지난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직 먼접 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7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니 새삼 놀랍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나에게 묻는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 나는 이 기회를 잘 잡으려 노력했던가.

전략, 문제해결, 리더십, 마케팅, 재무회계, 사회혁신, 그리고 캡스톤.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 그 한계를 만나러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내 옆에 함께한 조원들이 있었고 나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동안 많은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뒤어넘는 처음 마주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조원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동기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이제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돌아가려는 제자리의 모습이 아마도 새롭게 보일 것이고 함께 했던 동료들도 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아마도 그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해서라 생각된다.

"내가 변한다는 건, 우주가 변하는 만큼 어렵다"는 말처럼 힘들었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모든 날, 모든 순간(Every day, Every Moment)이 행복했다.

나의 세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김소영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오늘 나는 내 내면의 성장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7개월 전 나는 사랑만 받길 원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상황의 자극에 무방비로 반응해버리는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 리더의 신상한 의무를 떠맡고 외면하는 무책임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오늘 이 시점에서 과거의 나를 기억해보니 얼굴이 붉어진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두려움도 많았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관계 맺을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늦은 밤까지 수업을 듣고, 회의하고, 과제를 하면서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엄마로서, 많은 시간을 바운 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에 시달리어 했다. 물리적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캡스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답답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동시에 한 주, 한 주 수업에 참여하고, 조원들과 열심히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매주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참 성실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지금은 지난 봄보다 좀 더 단단해지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진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내 조직의 미션에만 골몰해 있다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스물아홉 명의 조직 밖 동료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 조직처럼 각자 영역의 미션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조직도 있고, 그런 조직들을 지원하거나 연결하는 조직도 있게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전에 알고 있던 NPO뿐 아니라 전혀 몰랐던 주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멋진 조직도 알게 되고,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힘차는 훌륭한 분들도 사귈 수 있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덕분에 비영리 생태계를 조망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관계자 여러분과 징글징글하게 긴 시간 함께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전국구 조원들에게도 감사하다. 우리 조원들 덕분에 배움의 고통의 여정이 즐겁고 유쾌할 수 있었다. "엄마 공부해"라고 말하면 알아서 숙제와 장자리 준비를 해주었던 든든한 두 아들에게도 고맙다. 교육 기간 동안 두 아들의 저녁 식사를 종종 챙겨주신 솔은 이웃 천선님과 팀장의 부재에도 각자의 역할을 잘해준 인디스쿨 사무국 멤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은 것을 베려하고 지원해준 나의 배우자 정일래에도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도 웃구하고 나를 강제로 성장 코스에 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을 갈망하는 모든 비영리기관 종사자분들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꼭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출발선에

김예리
서울YWCA

예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의 기대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에서 멈춰 서서, 달려온 길과 잠시 멈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그 기회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깊이 누렸습니다.

각 모듈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통해 제 마릿속 전구에 불을 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새겨주셨어요. 많은 순간 앞의 지평이 넓어지는 희열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미 익숙한 이야기들조차도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캡스톤 프로젝트를 함께 한 동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낯선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OT 워크숍에서 처음 만난 팀원들과 함께 공감한 사회문제를 붙들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뜻깊었고요. 예의를 차리느라 서로의 눈치를 보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서로의 강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완주하는 그 모든 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른 속도와 에너지로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 다름이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배려하며 품어주는 인격적인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얻은 영감이, 앞으로 활동 현장에서 계속 나를 가르치고 독려하게 되리라 믿어요. 저의 선생님이 되어준 도와조 팀원 모두 고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시간을 마음껏 누리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양선희 사무총장님과 임+욱아+공부로 버거운 상황을 내밀쳐 늘 따뜻하게 살펴주셨던 최웅 국장님, 일의 무게를 더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여성운동국의 기쁨샘과 지은샘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즐겁고 가슴 뛰는 일을 함께 만들어가요! 또한 세 아이를 두고도 일을 놓지 않고 이렇게 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우리 엄마 황여사님과 평일 저녁과 때론 주말까지 세 아이를 챙기면서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했던 좋은 남편 주우철님, 그리고 엄마의 빈자리를 견디며 사랑스러움으로 에너지를 충전해준 우리 하진, 다엘, 라엘 삼 남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으로 더 잘할게요!

내가 엠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 리더라는 것을 고통스럽 직면하며, 다시 출발선에 섰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겠다 다짐해봅니다. 함께 고민하며 달릴 동료들이 있어서 한결 가벼워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나다

김찬미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인생의 첫 직장에서, 만 10년간 근무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필요할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표와 열정을 추구하는 것,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말로워로만 있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아가거나 롤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만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있어야 하고, 내 결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이죠.

또한 랩스톤 과정을 통해 다양한 리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와 관찰자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제가 관찰자로 있었던 적은 없었구나 하며 반성하기도 했고 다른 리더들 사이에서 어떤 리더로 서야 하는지 돌이켜보고 나라면 어떻게 결정했을지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조 team함께와의 시간들을 통해 많이 배웠고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감을 주셔서 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은 잘 흘려보내고 어떤 경험은 유용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매일 다짐하고 매일 또 실패하겠지만,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어서 이 길을 외롭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본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제가 달라졌는지 성장했는지 깊이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족감보다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같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동기들을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만났으니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김효영
연희노인어가복지시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면접을 본 후 돌아가는 길을 걸으며,
새로운 도전, 흥미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직에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었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리더로서 좀 더 성장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나의 몸이 들어가는 순간 두려운 것이 많았다.

#침묵의 시간 그리고 직면하기

침묵의 시간은 옳기의 연결되어 있었다. 침묵이 어렵게까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었다니! 첫 단계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옳기의 도전정신과 자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캔스톤 과정을 통해 나를 속이고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였다. 관계라는 방패를 들고 업무에 대한 불안을 쏟아내는 모습을 직면하였다.

#일과 사람

일을 할 때 누군가와 함께한다면 힘들지만 버틸 수 있다며, 그동안 관계로 버텨왔던 시간들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일과 사람을 분리하는 과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닌,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하였고 나를 포함한 조직에 어떤 성과와 성장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어렵지만, 경계선 밖으로 발을 한 발짝 딛고 있다.

#다시 출발선에 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끝나면 번화된 중간관리자로서 고민했던 부분이 해결되고 "이젠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육아와 업무와 교육이 "이제는 끝이다!"라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나 수료식을 코앞에 놓고 중차장이 아닌 다시 출발선에 섰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배운 과정을 탐구하고 성장하기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섰으며, 리더로서 나만의 색깔을 찾고 혼습의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2021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이 허락할까? 10기 동기와 5조 팀원에게 해를 끼치면 어쩌지? 수업은 고민과 생각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보냈다. 걸어왔던 시간을 뒤돌아보았을 때, 10기 동기들의 따뜻한 위로와 5조 아멘저스 팀원들이 버려져 수료를 할 수 있었다. 어색했던 시간이 흘러 지금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사회변화를 꿈꾸는 30명을 만난 것에 매우 감사하다.
특히, 병기의 교육으로 업무의 자리를 비웠지만, 응원해주고 맛난 커피를 내려 주신 김태경 시설장님과 항기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미소 짓는 오해림 사회복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문이 닫힌 후에도 오래 오래 서성일 예정입니다

남준일
(사)온율

당신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문 닫기 전입니까? 아니면 닫고 난 뒤 아쉬워서 서성이는 쪽입니까?
-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

오래전 최선을 다한 연애는 끝난 후에도 아쉬움이 얼마다나 많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자리 지나가는 말꼴이었지만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분이라 십 년이 훨씬 지나도 마음속에 부러움이 남아있습니다. 꼭 연애뿐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이온 만큼을 더 살아내고 나면 정말 이 생의 문을 닫을 날이 머지않을 것 같지만 전 여전히 문을 닫고 아쉬움에 서성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의 다르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제 즐거움입니다. 실제 얼굴과 목소리보다 태블릿 화면으로 보는 사진 모음과 마스크 위의 눈매와 이마라인이 기억에 더 깊게 남아 또 아쉽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고민을 하며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과의 대화, 느껴지는 열정에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꽤 긴 시간, 바쁜 나날들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벌써 끝이라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디서 이런 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신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과정의 문은 닫히지만 전 제 오래 문 앞을 서성일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큰 만큼 더 긴 시간 문 앞을 오가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서 저에게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놀고 싶습니다. 캐런에서도 놀아야 장을 계속 영어를 가리 양자하고요. 사람들과 문 앞에서 열심히 놀다 보면 그 길 앞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될 날도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는 저도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러 교수님과 백민정 팀장님, 재단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안태호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성씨를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우리 다양성 UP팀 사랑합니다. 아직 좀 낯설지만 그래도 더 친해지고 싶은 우리 동기들과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같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 과정 동안 희생해 준 사무실 식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좀 더 드거운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지난 7개월이 진부 고마웠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고마운 분들께 고마움을 더 많이 표현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사랑합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너른 바다를 향해

노영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리더의 무게와 책임이 많이 버겁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역할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인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해내고 있는지 도저히 확신할 수 없었던 저는, 높은 직급을 하고 돌아와서도 쉬이 잠들지 못하고 했던 말과 결정과 선택을 복기하곤 했습니다. 현지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꿈꾸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고리와 끝은 살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로 살아오는 13여 년 동안 주어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노력과 배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사람들을 위한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리라 생각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리더라 불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원할 때는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높은 시각, 사무실에 남아 고심하면서 지원서를 써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주어진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과제와 질문, 협력과 가치가 무엇인지 까내어보고 생각했습니다.

과정 초반에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도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모든 과목과 강의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조직에 적용하고 활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칵칵 배우고 흡수하면서 비평이 붙어에 고정되어 있던 제 시야와 생각의 폭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부딪히고 돌파하면서 한 점씩을 찐찐할 때 얻어내는 성취감과 교훈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프로젝트는 내내 다소 막연하게 불컵고 있었던 뚠슬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사실, 마냥 즐겁고 유쾌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과제에 의무들이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함께 모여서 나누는 각 조직과 개인이 가진 어려움과 상처들은 모두의 눈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쏟아서 해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다가올 때는 내 선택으로 인해 그 어떤 일도, 그 누구에게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7개월의 동안 제가 금격하게 성숙해지거나, 김은 통찰과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제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간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해졌던 저는 이제, 언제 펼쳐질지 모르는 급류와 너른 바다를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 보면 제가 강물이 되어 스스로 흘러가고 있었나 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용돌이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도 바다를 향해 느릿느릿 흘러갑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일, 느리지만 기본의 원칙을 지켜나는 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꿈꾸는 변화의 모습은 누군가 앞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손잡고 나란는 발걸음입니다. 작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단단한 울림의 힘을 믿습니다.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민는 사람, 소중한 변화를 지켜 내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 또한 더 성실하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동안, 작자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던 29명의 동료를 만나고 그들이 삶을 통해서 도전과 배움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모든 분과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처의 도전과 고민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고,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함께해 주셨던 KCOC의 소중한 동료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박보연
안양시부중증합사회복지관

"누가 로빈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성장하면 되니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두렵고 막막했던 내게 힘이 되었던 책의 한 구절이다. 로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나 스스로 살기 위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문을 두드렸고, 7개월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그 문을 나설 때가 되었다.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참석한 입학식. 그 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과 같은 비영리 영역이지만, 낯설고 생소한 분야의 다양한 동료들과 만남이 설레고 기뻤다. 그렇게 OT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저녁에 맞이한 접스톤 수업. 그날은 도저히 참여 오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두렵고, 답답함, 걱정과 불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의 기대와 반응에 민감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모든 과정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 모습을 인정하기까지의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제는 "리더는 저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자신감의 경계를 건드렸을 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반응이 나타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경계에 스스로 발을 내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여기서 끝나지만, 아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조용히 돌아가 묵묵히 일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거나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그렇게 리더로서의 내 역할을 찾아 내 길을 갈 것이다. 앞으로의 여정도 동료로 함께 해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동기와 함께에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3조 Team함께의 김선구, 김찬미, 서원하, 윤석철, 이주희 선생님, 그리고 과정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응원해준 복지관 동료들, 마지막으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남편, 주원이, 주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세상의 징진과 비난에 내 걸음이 좌우될 수는 없다.
지금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해와 달은 자신의 길을 간다."

훈습! 맞다

박종규
경기복지재단

2021년 3월, 사회복지사로 20여 년간을 살아온 나를 살피고 마주 보고 싶었다.

우연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예세이를 작성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다. 아무 생각 없이 다가온 면접에 훅 들어온 질문 "당신에게 왜 이 과정이 필요한가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가슴 쓰리던 내 모습이 지나갔다. 현재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목표를 정하면 그걸 이뤄야만 했다.

매번 활동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꼭 이뤄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감하게 집중하고 조율하고, 실행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나는 나를 괴롭히고, 나의 동료를 괴롭혔다. 싫었고, 지쳤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 힘을 빼고 몸을 맡기고 싶었다.

사회학신, 리더십, 인적자원, 문제해결, 전략, 마케팅, 재무회계 대부분의 과정은 편하게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살피고 내가 사는 세상을 살피게 해주었다. 캡스톤도 나를 즐기면서 몸을 맡길 수 있었다. 팀 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과정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하여 훈습하는 캡스톤 팀 프로젝트는 내내 편안히 붙어가고 싶은 나를 괴롭혔고, 이런 나의 태도로 우리 5조를 괴롭혔다. 괴롭지 않으려고 아카데미를 신청했는데 이런….

팀 프로젝트 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불편함과 고통이었고, 미안함과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열심히 안 하겠다고 했다가 열심히 하는 기홍샘에게 화낸 것이 가장 미안했다. 모든 과정에 적극적인 진희샘, 고민 않고 문제를 점검하는 성현샘, 전체를 살피고 일이 되게 마음 쓰는 덕순샘, 지켜보다가 조용히 조직을 움직이는 효영샘, 우리보다 우리 팀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김민영 코치청 선생님, 모두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이렇게 써보니 참 괜찮은 팀이었는데, 이제 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내 잘못이지….
훈습! 맞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훈습이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온 모습이 나은 결과를 지연하는 훈습, 목표를 정하고 이루기 위해 나를 괴롭히고, 동료를 괴롭히는 것이 결국 해야 할 일었다. 인태조 매니저가 이상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모두를 수료에 충분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과제 제출과 출석을 점고 확인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가장 고마운 인태조 매니저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의 훈습이었다. 함께 고민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되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몸에 근육처럼 기억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고통을 가중시켜 그 근육을 강화하느냐가 나에게 남았다.

초심에 중심을 더하다

서원하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4월에 시작해 어느덧 마지막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설렘과 기대로 도전한 과정에서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다.

나를 꺼내어 자세히 보았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몸담은 조직과 청소년 분야에서 가지 있는 활동을 하며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좀처럼 맘 같지 않은 현실의 제약들로 조직이나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수없이 직면해야 했다. 그러니, 스스로 도태되면 안 된다는 자기 계발에 대한 강박도 경험과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례해 커져만 갔다. 그러다, 자연스레 한계에 봉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반복하다 순간, 성장보다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나온 나를 기대하다, 무엇보다 동기로 맺어진 다양한 분야의 29명의 활동가 선생님들은 나에게 큰 영감과 깨우침을 주었다. 형식과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실천을 해보며 성장할 수 있었고,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흔습 과정은 다급하고 불안한 나에게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을 느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감사함'이다.

막연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고 깨낼 수 있는 '상황을 좋는 능력', 환경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리더십을 학습할 수 있는 '용기와 태도'를 가지며, 자각한 '나'다움으로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며 가치 있는 활동들을 이어 갈 것이다.

모든 여정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선후배 동료들과 항상 살펴 주느라 고생한 매니저님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과정을 함께한 'Team 항계'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서철원
서울시립노원청소년센터

2021년 시작은 나에게는 무던히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만 3년간 떠나 있던 노원청소년센터로 다시 돌아왔던 올 2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은 무척이나 어렵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긴축운영, 구조조정이었고 외부 자원도 어떻게든 끌어와야 하는 정말 하루하루 피 말리는 듯 전쟁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선배님이자 위탁운영 법인인 푸른나무재단의 이종익 총장님께서 이 과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과정, 여유는 없었지만 도전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하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에 합류하였지만, 익히 고난의 길에 대하여 들어 왔던바 '과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험과 열정만으로는 한계와 괴리감을 느끼는 시점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는 꼭 필요한 단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도 공존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는 잘 안 돌아갔고 신경 쓸 것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은 초급씩 나를 깨우고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또 다른 힘들은 전반적 생활의 활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과 캡스톤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안만은 주변의 어려운 일들은 순간 '망각, 되고 '몰입, 되었으며, 또한 이 '망각,은 'refresh,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 되어 개인과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긍정적 방향이 되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앞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알으로도 계속해서 던져지게 될 질문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성장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했던 과정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힘들고 괴롭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만큼 간절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10기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수료할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과 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기분들에게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스크는 플라스틱이고, '도와조'는 사랑입니다.

열정과 도전의 시간, 그리고 다시 식지 않은 열정으로

오지혜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021년 11월, 제10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를 앞두고 지난 7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본다.

지난 4월, 떨렸을 위해 아산나눔재단을 처음 마주한 때의 기억부터 더듬어 본다.
기관 입사 후 얼마 만의 면접인가?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쿵쿵거리는 가슴을 안고 면접에 임했다. 리더십 훈련을 위해서라면 많은 책과 정보가 넘치는데 왜 꼭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이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두서없던 나의 대답은 "책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구성원 개개인이 가진 경험과 리더십을 공유하고 익히며, 서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 또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인적자원으로서 배움과 자극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은 정리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질문의 대답과 기대한 바가 캡스톤에서 김상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습"의 과정과 같은 의미였던 것 같다.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의 과정 중 특히, 김재영 교수님의 전략 수업은 새로운 정보 외에도 업무 경험을 통해 머릿속에 두서없이 나열되었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난 15년 동안 집어넣고 쌓아두기만 했던 방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꽃은 캡스톤일 것이다. 게임을 통해 운영적으로 구성되었던 '2조 도화조'의 첫 만남도 새록새록 하다. 마스크로 반쯤 가려진 얼굴로 눈빛 미소만 어색하게 주고받던 이들이 과업만 주어지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가로 변신했던 것 같다. 그 열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밤낮 토론을 통해 하나하나 과정을 만들어 가는 재미도 있었다. 기간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정말 우리가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슈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은 버겁기도 했지만, 늘 하던 업무에서 벗어나 진정 원하는 사회 변화를 위해 고민하면서 새로운 가슴이 뛰는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각자가 리더로서 역할을 스스로 만들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경험하며 배우기도 하지만, 자신과 만나 성찰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마주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밉기도 했던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와 병행하면서 프로젝트의 수행은 녹록지 않았지만 조원 간 양해를 구하고 이해하며 서로가 하나씩 빈틈을 메꾸며 팀워크를 경험하게 하는 매력도 충분했다. 서로 다른 경험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경청하고 배우며, 하나의 목적을 위해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고민하고, 함께 환호하고 우리끼리지만 만족하며 기뻐했다.

또한, 리더로서의 고민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들도 찾아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리더의 이야기, 선 경험을 통해 내게 전달되는 메세지, 이러한 소통은 우리는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고, 약간의 순서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내가 맞는 길을 걷고 있음에 위안과 위로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보낸 우리의 7개월은 막상 너무도 짧은 듯하다. 이렇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수강생으로서의 과정은 수료하지만, 앞으로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한 더 많은 만남과 성장이 기대되는 건, 나 뿐은 아닐 듯싶다.

의미 있는 시간

윤석철
(재)함께일하는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처음 지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지금 수기를 작성하는 지금까지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의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 지원을 위한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험한 일과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나가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때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7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먹먹의 긴장감과 압박감을 경험하고 운 좋게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렘과 기대감을 느낀 지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나 수료 수기를 작성하는 지금,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지원서를 작성하던 때와 같이 아카데미에서 들었던 수업, 캡스톤 과정, 정말로 즐거웠던 제주도 글로벌 스터디 리트릿 등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참여하기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기들과 함께 어쩌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지도 모르는…, 교육 과정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어렵고 막연한 단어인 리더십에 대한 고찰과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아카데미 과정의 흐름과 시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교육받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단순하게 청취하는 것이 초반에 참여하는 나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캡스톤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험뿐 아니라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니터상으로 만난 날들이 대다수였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욱욱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동기분들과 함께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통해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고 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결국 나를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계획된 공식적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종료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함께 한 동기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시간

이대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뭐랄까! 이 가슴이 폴딱폴딱 뛰지 않는다고 할까?
첫 직장에서 14년간 일하면서 처음의 설렘보다는 익숙한 것들, 잘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새로운 자극과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고, 간절함이 통했는지 10기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강렬한 첫인상, 계속되는 자극과 영감 그리고 감동
약 20분간의 생산적 침묵, 너무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캡스톤 수업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전략 분석과 측정 방법을 알려준 전략 모듈, 나만의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리더십을 접할 수 있었던 리더십 모듈, 트렌디한 마케팅 방법 및 브랜드의 중요성과 인사이트를 줬던 마케팅 모듈 등 여러 모듈 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과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캡스톤 모듈을 통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전략적 리더십을 혹습 할 수 있었고, 독립적인 리더십 발현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올륭한 교보재 등기를 덕분에 매 수업이 감사하고 감동이었던 시간들이었다.

결국 나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 여직 잘 모르겠다. 다만, 나를 온전히 들아보는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기피하는지 등 일정한 행동 패턴을 보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얼마나 다른지 또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쉽다. 하지만 끝이 있었기에 더욱 완벽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갔다.
이젠 사무치게 그리울 것이다.
배웠던 것, 느꼈던 것, 생각한 것, 즐거웠던 것들을 곰씹고 실천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마지막으로 캡스톤 프로젝트에 진심이었던
김프로(Frontier), 김프로, 서프로, 오프로, 연프로와 그리고 함께했던 동기들,
크티칭 선배님, 모듈 교수님, 그리고 온전히 이 모든 과정을 누렇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한 시간

이미영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일기장을 펼쳤다. 이 일기장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첫 OT워크숍 때 받은 것이다. 일기를 써 보라는 권유에, 사용하던 일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물 받은 일기장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강생으로 지낼 7개월을 담고자 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4월 23일 워크숍을 마친 날부터 10월 21일 캡스톤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긴장과 설렘, 멀림이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힘겨움, 좌절감, 숨 막힘, 조조함, 막막함, 부끄러움, 의기소침함, 외로움 등이 뒤를 이었고 이후 재미, 짜릿함, 뿌듯함, 고마움, 자랑스러움, 행복, 감동의 문장이 가장 최근에 들어와 있었다.

진행되었던 시간 대부분이 신세계였다. 생소한 분야, 단어들이 줄지어 등장할 때마다 걸림과 복잡한 감정, 두려움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한 자이가 더 깊이 근두박질치는 듯하였다.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흉내 내고자 기준에 갖고 있던 고정적인 사고를 전환하고 감정과 행동을 참았어고자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숙고하였다. 수업 중 교수님이 전한 내용을 잊고 싶지 않아 틈틈이 기록하였고 그것을 일기장에 옮겨 적었다니 지금은 두고두고 세겨 둘 어록이 되었다.

요즘 들어 생긴 습관이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머리 속에 새롭게 들어온 단어들을 되새김하는 일이다. 과정을 통해 익힌 단어를 기억하고 기술과 도구를 체득하기 위한 나만의 비법이다.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던 간절한 소망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충족선할상자로 나에게 왔다. 여전히 주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연연하며 불안정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두렵고 불쾌한 한심을 마주할 용기, 수치심을 회복할 인력성, 포용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문화 등을 내 안에 자리 잡고자 지향하게 노력하고 있다.

감추고 싶은 나의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게 아낌없이 풀어준 교수님, 10기 동기, 특히 1조, 그리고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늘 곁에 아카데미

이상석
송국클럽하우스

복지 현장을 지켜온 지 10년째, 요놈도 사람 살이를 돕고 있다, 해가 갈수록 사회는 격변하고 파도처럼 쓸려온 중간관리자라는 직함은 내가 어디쯤 왔는지 짐이보게 했다. 그리고 최초된 배처럼 누군가 어디로 갈지 일러줬으면 하는 마음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했다. 허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면 내가 느낀 것은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허기짐을 알아봐 주신 결까. 감사하게도 10기의 일원이 되었다.

2차 에세이 과제에서 석존이 인간의 삶에 심라만상을 담고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나를 비롯한 30명의 동기분들이 각자의 비명리 조직에서 우주를 기꺼이 열어주었다. 하나의 교육과정에도 열정을 열어주는 분들이 있어 기쁘게 함께할 수 있었다. 특히 컵 쌓기로 옆은 캡스톤의 인연으로 이렇게 트기운 마음을 나누게 될 줄 몰랐다. 피부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나의 리더십에 훌륭한 교보재가 되어주신 팀원들께 글로나마 드거운 감사를 전하고 싶다. 보태어 기꺼이 서로의 리더십에 거울이 되어준 29명의 리더에도 감사하다.

7개월간의 배움의 시간을 보내며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캡스톤 화면에서 마이크를 켜지 못했던 순간도, 전력 도서를 받아 들고 여태 복습을 더 하지 못한 것도 속쉐저럼 남아있다. 여전히 리더로써 용기 내는 일이 어려운 모양이다. 그럼에도 조직에서 내 모습과 교육과정을 돌아보며 더 면밀하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다. 정말 큰 수확이다. 리더로써도 더 내 모습을 찾으려 한다.

지방살이에 익숙한 나는 유독 지역 번호 '02'로 시작하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든든한 아산과 동문이 생겼기 때문. 1950년 헤밍웨이이 인터뷰에서 따라는 마지 움직이는 속쉐저럼 일상에 당신이 어디를 가든 늘 당신 곁에 머무를 것이다. 바로 내게 그렇던 것처럼이라 한다. 기쁘할건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며,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추억과 교재를 닮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공서처럼 늘 곁에 두려 한다. 더 넓은 앎을 열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모든 분께 진심 담아 감사를 전하고 싶다.

변화를 위한 여정,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시작합니다

이상현
월드비전

주어진 역할과 업무에만 몰두하며 사회변화와 혁신에 눈과 귀를 닫고 살던 저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변에 잘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다가 다양한 사고와 저만의 개성을 갖춘 분들과 함께하며 만들어내는 멜팅팟의 과정을 지나가며 마음이 열리고 정계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은근히 저항하오만 저에게 이런 좋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정말 저력이 있습니다.

신념과 야정을 담아 리더십을 설파하시던 강사님들의 뜻른 활동가로서 도저히 모른 체 할 수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관성대로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닌 사유하고 공부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계속 거듭나는 것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진 빚을 갚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한동안 묻어 두었던 트거운 마음이 다시 솔라습니다. 결은 달라는 다른, 이제는 좀 덜 막연한 그런 이상이 생깁니다.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트겁게 달구고 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동기생들과의 만남은 너무 소중합니다. 당장은 학습 과정의 부담감에, 피곤함에 외면하던 때도 있었지만, 수료를 앞두고 보니 오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보상과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설렙니다. 가족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활동의 고충과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 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수강생들이 더 잘 학습하고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서 변화을 일으키도록 그만하고 애쓰는 아산나눔재단의 의지 commitment가 저를 또 도전시킵니다. 사회변화는 더디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무거운 수레바퀴를 천천히 같이 돌릴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참 든든하고 기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고맙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만의 향기를 찾는 여정

이연정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커피는 향미와 산미, 바디 등 다양한 항목의 평가를 통해서 커머셜, 프리미엄, 스페셜티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커머셜은 각 지역만의 특성이 있고, 프리미엄은 그에 더해 다양한 향미, 스페셜티는 다양한 향미와 더불어 그만의 독특한 개성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요.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 입사하기 이전의 제가 커피에 대한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길러왔던 커머셜 등급이라면, 재단에 입사한 이후 소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하고 참가하면서 다양성을 가지는 프리미엄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사업인 수익사업이 힘장을 맡게 되면서 상충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영리와 비영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바리스타 직원들에게 사업의 방향을 잘 전달하고 그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등 팀 리더로서 답이 쉬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커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영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기보다는 배움을 통해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제가 스페셜티 커피에 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8기 선배와 재단 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10기의 한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략, 문제해결, 인적자원, 리더십, 마케팅, 재무회계, 사회혁신 모듈 수업을 듣고 캡스톤 수업과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연하기만 했던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정리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단계별로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토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한정된 지식 속에 갇혀 있었는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교수님과 강사님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10기 동기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분들을 통해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이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7개월이라는 짧고도 짧은 시간 동안 나 자신을 깨우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기간이었다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끝난 이후에는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것들을 다지고 가다듬어 온전한 내 자신이 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빼뚤한 한 명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사람들, 어쩌면 앞으로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과정에는 끝이 없고, 내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나눔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Keep Going

이주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6

한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잊어버린다, 얼마나 다양한지,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래서 자주 돌아다니고, 살펴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배울 수 없다면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만 그러할까? 조직의 삶도 동일하다. 소셜섹터는 사람과 조직이 모두 같이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은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

그렇게 나 자신의 지속가능성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다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역량이 조직을 통해 소셜섹터에 기여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 소셜섹터의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가 더 나은 가치와 발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가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참여하지 않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하고 싶어서 지원한 아카데미였다. 응장한 도전으로 최종합격의 기쁨을 경험한 이후 7개월간 매일 빠지지 않고 고통과 좌절을 마주했다. 체력의 한계와 의사소통 방식, 관점의 차이로 마주하는 다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괴로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어려움, 현업과 아카데미를 병행하는데 오는 어려움 등 모든 배움의 자리에서 성장만큼, 혹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왜 한다고 했을까 하는 후회를 했다. 그럼에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회를 대신한 것이기에 흘려오는 후회만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처음 지원할 때 제출한 에세이를 다시 꺼내 보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며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알았고, 더 나은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한계들도 파악했다. 감사하게도 조직 밖의 소셜섹터에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기들과 지원군을 얻었다.

먼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소셜섹터의 리더 육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는 아산나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람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셜섹터에서 귀한 사업 덕분에 선발되어 조금 더 존비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공동모금재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하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 인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관심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끝으로, 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20명의 동기와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이분에 내가 가진 리더십의 특별함과 발전 가능성을 발견했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늘 우리는 과거의 누군가의 수고로 존재하는 의미 있는 현재이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현존하는 미래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세상'을 만들어 갈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역시나 '내가 가면, 길이 된다'는 좌우명이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길이 되도록 숙고하며 리더로서의 책임을 겨울리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해본다. 인생도, 학습도, 성장도 여전히 지속하여야 한다. 내가, 우리가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도 길이 될 것임으로.

가보지 않은 길, 가야만 하는 길

정택순
(사)글로벌호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7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갈급함, 열망, 리더로서의 책임감... 지원할 때 가졌던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업무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정말이지 작 소리가 나올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어렴게만 느껴지던 수업들에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가보라고, 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채찍질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밉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리더가 되는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뛰어넘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동기부여 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긴을 하면서도 프로젝트에 열정을 다하던 동기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가며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애정을 다해 주셨던 코티칭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봐 해 봤어?
며칠 전 점연의 시간을 때무기 위해 무인 카페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재미 삼아 옆에 있는 뽑기를 했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참 자주 듣고 접했던 해장주영 회장님 말씀이 작한 충이가 나왔습니다. 미것은 우연인지 운명인지...

아마도 운명이겠죠!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다시 만났을 때는 해봤다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하며 떠나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 동기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양한 고민을 안고 모여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해 주고자 했던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성장을 위한 동력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교수님들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시절은 너를 만나 다행이고, 우리를 만나 꿈만 같구나

정준호
(재)대정청소년회

저는 이제부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영능력,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한 진일보의 기회가 주어졌던 지난 7개월간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돌이켜보면 새로움의 발견과 저 자신이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발견과 성장은 업무 능력의 상승과 지적 수준의 향상, 조직 관리 등의 효율성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십, 전략, 캡스톤 등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영리 기업에 있건, 비영리 조직에 있건 누구를 다스리고 알아서 조직을 잘 운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좋았고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시선의 각도를 드는 비롯이서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였고, 놓치고 있던 시공간의 공백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다시금 절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본업에 매진하면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동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되었습니다. 너테할, 귀찮음, 버거움, 때로는 도망치듯 쫓아가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점점을 알으로 내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무사히 끝내자.',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자.' 가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을 어떤 시선과 시고로 바라보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Pay it forward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에 대한 자각의 과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비영리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을 알고,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동반되기도 하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이해야 하는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함께 7개월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한 4조 전국구 조원들, 10기 동기분들, 활심량면 뒤에서 일어주었던 제민의 가족들, 좋은 강의로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모두가 함께있기에 이 과정을 온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절은 개개인이 너를 만나 다행이었고, 여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우리를 만난 것이 꿈만 같습니다.

내 안의 성문을 열게 만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정진희
월곡청소년문화의집

번화의 절박함, 그리고 도전

남들보다 조금 일찍 리더의 자리를 맡아 일하면서 졸업과 신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많고,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를 포함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실천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여 감격스럽게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대함, 그리고 열정

첫 OT워크숍 때 30명의 동기를 만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열정, 화려한 언변, 깊이 있는 지식수준, 비영리 영역에 이렇게 멋진 리더들이 있다는 것에 열정이 많고, 기개될 동안 함께한다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새록새록 올라왔습니다. 교육, 팀 프로젝트, 과제를 하면서 협소한 생각과 견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번화에 앞서 스스로의 번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득한 내용을 직원과 공유하며 업무에 적용해보고 결과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바쁘고 정신없었던 2021년도였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열정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시도

돌아보면, 내 안에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길 원했고, 그 삶이 맞다고 믿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저의 성문을 두드리며 나오라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외면하고 싶어 모른 척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면 지금의 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씨보고, 솔을 크게 쉬고,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나고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제 생각으로 만든 성을 허물고, 돌고 배우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고, '무엇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쉬움, 또 다시 시작

'미래는 우리 앞에 있지만, 미래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다' -윌리엄 깁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나 수료만 남겨두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끝난 이후에도 시간은 흐르고 지금처럼 업무를 진행할 텐데 내년에는 올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쌓아놓은 다양한 지적 자산을 풀어가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권위 14가지 특성 중 3가지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리더로서의 열정을 마루지 않는 배려, 자기 생각을 솔직없이 공유하는 투명성,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기다려주는 용기

감사함, 또 감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를 하면서 배움을 나눠주신 교수님, 대표님,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단 관계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함께한 멋진 이번꺼스팀 형! 고맙습니다. 때자까으로, 7개월 동안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10기 동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고 수로 미루어도 함께 할 날을 기대합니다.

유혹당하지 않을 만큼의 성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다

조혜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벌써 마지막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처음의 떨림과는 또 다른 떨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원서를 쓰고 지우며 반복했던 고민들, 떨림과 벅참 가득했던 면접, 행복한 설렘이 동참했던 첫 입학식, 열정 넘치게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줄줄하던 수업 시간, 서울로 오가던 길, 동기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했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모든 과정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중반을 넘어갈수록 더해지는 교육의 깊이에 단순히 흘기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 수많은 고민을 통해 현실에서의 적용이 더욱더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물음표를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통해 찾진 느낌표로, 때로는 쉼표로, 마지막에는 온점으로 표시될 때까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의 진짜 마무를 기억하고 노력과 열정을 계속하자 말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유혹당하지 않을 만큼의 성장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순간순간 수많은 유혹이 저와 함께했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가진 것이 없는 듯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성장은커녕 오히려 스다른 유혹이 저를 한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어느 방향으로든 한 발을 내딛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할 눈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때론 격하게 자괴감인 분노까지, 잘 참을 줄만 해했던 저에게 용기와 위로로 힘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분에 한 발짝씩 내디딜 수 있었고 무사히 수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경험하게 된 배움과 앞의 유혹은 제 삶의 요소마다 구멍구리며 매른 우뚤댔으로, 매른 현실의 답답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성부른 시도보다 깊은 성찰과 준비로 단단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마음의 목표를 품고 순간순간 뒤어 오르는 성장을 향한 달콤한 유혹을 잘 달래며 참아한 저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마음 가득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제게 피할 길이었고, 새로운 안식처였으며, 아픈 상처 위에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생각을, 마음을, 힘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며, 위태로워 수많은 유혹에 흔들릴 테지만 믹지만 단단한 자신을 향한 믿음이 힘을 발휘해줄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생각과 조언을 나누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교수님과 동기들, 아산나눔재단이 함께하기에 힘을 얻어 또다시 제 삶이 한장으로 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궂에서 배움을 기억하며 결슨해져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고 베려해주신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이경우 관장님과 모든 직원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캡스톤 과정을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해주신 전국구팀 정말 감사합니다. 열정 나연, 불매 소영, 귀욤 상석, 최애 준호, 든든 주현 선생님이 계셨기에 어려웠지만, 행복한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동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추억할 수 있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과정에 힘써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아산나눔재단 임직원분들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꼭, 찜이라 교육 일정을 챙겨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귀한 니의 보물 진서, 온서, 현서에게 온 마음 다해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지덕 행복과 슬픔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반응해 주시며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 시간을 예비하시고 인도해주신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애써 외면해온 여러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의 연속

최주현
세이브더칠드런

멀게만 느껴졌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나 갑니다.

많은 아쉬움

우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많은 아쉬움이 앞섭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의 대부분이 코로나19 기간에 진행되어 대면보다는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교수님이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듣지 못했던 아쉬움, 동기들과 직접 만남과 소통을 갖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수업을 줌 더 영상이 돌돌 말, 조별 멘스톤도 줌 더 영상의 직접적으로 할 줌,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 안에서 동기들과 소통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걸, 여러 아쉬움이 먼저 생각납니다.

애써 외면해온 저의 여러 문제와 직시하는 순간들의 연속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저에게 마치 바닥 깊숙이 가라앉아있고, 켜켜이 쌓여온 먼지들이 한꺼번에 휘저어져 온통 흙탕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소셜섹터 현장에서 일하면서 애써 외면해온 저의 문제들과 마주하고 직시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사회혁신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부족한 리더십과 마주하게 되고, 저의 서툴렀던 업무 방식과 마주하게 되고, 저의 무지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애써 외면하고, 한 켠에 묻어 두었던 저의 여러 문제와 맞닥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멘스톤을 하면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방식에 대한 불편함과 잘 모르는 주제와 함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함과 마주하게 되고, 때론 리더로서 때론 관찰자로서 나와 동기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저를 두렁허면서 저의 부족한 모습들(새로운 일과 불확실함에 유독 힘들어하는 모습,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 어린히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모습 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실무자 마인드에 갇혀 있음을, 해결보다는 외면을, 변화보다는 안주를 선택해온 저의 모습과 직시하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고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을 마치며, 부단한 노력으로 저만의 올바른 궤도에 안착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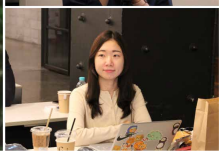
최근에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저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켓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으나 인공위성이 궤도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 교육 과정은 나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지만, 아직 저만의 리더십,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통해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만의 올바른 궤도의 안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이 끝나더라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올바른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마다 정성을 다해 지원해주신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교수님, 함께 공부하며 다양한 리더십과 경험을 공유해준 동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장의 기쁨과 슬픔

홍주은
(사)점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을 믿는다. 이제 막 팀장으로 걸음마를 뗀 내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로 한 해를 보낸 것도, 30개의 모양으로 비영리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77월 동안 성장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한 것도 바로 지금이어서 다행이었고 운전한 의미가 있었다.

과정을 시작할 즈음의 나는 리더라는 역할을 부족함 없이 수행하고 싶었지만, 책임감에 압도당해 제멋대로 지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돈리던 차였다. 앞서서 이끄기를 지나가신 다른 분들의 이야기, 일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절실했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문제해결 그리고 캡스톤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각 수업 모듈은 수많은 시간과 사람이 탄탄히 다져놓은 길이었다. 존자시리안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도 물었을 제시간 관점을 매시간 얻었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한 수많은 필요조건 중에서도 정체된 핵심답게 깊이와 넓이가 남달랐다.

지적 갈증이 해소되는 만큼 사람에 대한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다양해졌다. 나를 지독하게 마주하고, 타인을 바로 보도록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열심히 일구어낸 결과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자부심이었지만,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은 연재나 틀린과 자책의 대상이었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거치며 관찰과 변화의 대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내가 나를 더 존중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엄격하게 대해야 함을 배웠다.

29명의 동기 선생님들도 나에겐 슬겨진 9명과 모들과 같이 도 다른 귀중한 학습의 주제였다. 참여자 모두가 자신을 재료로 내어놓고 서로를 '존슴' 하면서,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고 실천하며 조금씩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참되고 바른 노력을 계속해서 몸에 새겨가는 과정'을 함께한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 바다와 같은 이해로 나를 품어주신 1조 다양성LIP 조원분들, 교수님들, 진심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점프 동료들이 계셨기에 이 과정이 완성되었다.

정답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주어질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해야 할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리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순간마다 점검하게 성찰하고,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억하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았다.

결국 리더로 성장한다는 것은 힘연적으로 기쁨과 슬픔이 있는 일인 것 같다.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나아지도록 이끌어야 하고,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한 뱀의 성장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좌절은 늘 그림자처럼 걸에 있다.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기꺼이 리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는 마무리되지만 지역다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중심을 잡는 시간 속에서, 나의 일부를 잃고 또 얻으며 혈대 쉼추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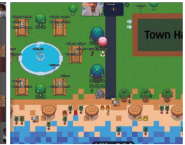
제10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잊지 못할 순간들

입학식
OT 워크숍
중간워크숍
캡스톤 발표회
글로벌 스터디
수료식

ASAN FRONTIER ACADEMY

10th ASAN FRONTIER ACADEMY

입학식
아산나눔재단
The Asan Nanum Foundation
입학식


Town H

Asan Frontier Academy
Global Study Visit

Asan Frontier Academy
Global Study Visit

글로벌 스터디 비전 국내 연수

2021.04.21
~2021.11.05

ASAN
FRONTIER
ACADEMY

홈페이지 | www.asan-nanum.or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TheAsanNanum

블 로 그 | blog.naver.com/asan_nanum